

# 광주서 최저임금으로 전세 얻는데 8년6개월

## 내년 최저임금 年 88만원 상승 아파트 전세가는 216만원 올라 전남 6년·서울 21년 3개월 걸려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이 광주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일까?’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8년 6개월이 걸린다. 전남에서 전셋집을 얻을 경우에도 6년이 걸린다. 전국 평균인 12년6개월보

다 짧은 편이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최저임금 상승률의 최고 6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 시급은 521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휴일 포함 월 209시

간) 월 108만8890원, 연 단위로 환산(월 환산액×12개월)하면 1306만66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연 환산액인 1218만8880원보다 87만78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캐브는 7일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교해, 연간 최저임금이 88만 가량 오르는 동안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54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월 1주 현재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전세가는 1억622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5689만 원과 비교하면 540만원이 증가하면서 6배 이

상 오른 것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올 7월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값이 1억1042만원으로 지난해 7월 1억826만원과 비교하면 216만원 상승했다. 이를 내년 최저임금으로 나누면 8년6개월이 걸려야 전세 아파트 마련이 가능해진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교하면 전셋값은 3배 가까이 올랐다.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7549만원에서 7741만원으로 2배에 다다른 192만 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으로 전세 아파트 마련이 가능한 기간은 6년이었는데,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최저임금으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은 21년3개월이 걸려야 전세 아파트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국 전세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나 처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인 10.21%의 3배에 이른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2009년 3.39% ▲2010년 7.12% ▲2011년 12.3% ▲2012년 3.52% ▲2013년(상반기) 1.72%로 조사됐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아시아나항공 주가 ‘빨간불’

## 실적 악화에 사고 ‘겹악재’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사고까지 터지면서 주가에 ‘겹악재’를 만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지면 충돌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나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밝혀지면 탑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식시장은 사고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7곳은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적자는 123억원에서 최대 22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영업손실 전망치 평균은 156억원, 당기순손실 평균은 493억원이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부진한 것은 일본인 탑승자 수요가 부족한 위협,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화환산 손실과 이자비용이 증가한 탓에 당기순손실 규모도 지난 분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분기 영업손실 211억원과 당기순손실 482억원을 냈다. 2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모두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맥을 못 쳤다. 주가는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17.28% 하락했고 최근 한 달 동안 5.00% 내렸다. 3분기 실적은 여름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뜻밖의 항공기 사고로 3분기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사고 항공기는 총 23억8000만달러(약 2조7180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어 직접적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의 영업전망이다.

특히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면 주가에 단기적 악재가 될 수 있다”며 “3분기 흑자가 예상되지만 사고 원인과 앞으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6월 식량가격지수 전월비 1.7p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1.7p 떨어진 211.3p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1990년 이후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파악해 매월 작성·발표하는 수치로 2002~2004년 평균지수가 100에 해당한다. 곡물지수는 올해 밀 작황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전월보다 2p 하락한 237p를 기록했다. 유제품은 주산지인 남미 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보다 1p 내려간 198p를 기록했다. 육류는 전월보다 3p 상승한 177p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유제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생산 증가로 전월보다 11p 하락한 239p를 기록했다. 243p를 기록한 설탕지수는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백화점에 경비행기 떴다

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민광장에 실제 경비행기가 전시돼, 고객들이 인증샷을 촬영하는 등 즐거워하고 있다. 백화점은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게재한 경우 선착순 100명에게 수니발렌 1개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 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 대상 140만명 늘듯

최근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의 가입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전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 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

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가 3.6세인 점에 비해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남성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가 80%에 육박,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박재순(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남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 사업현장을 방문,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7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장마로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박재순 사장은 주말 광주·전남을 찾아 장성 유담저수지, 담양 담양호 등 높이기 공사 현장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관계직원들을 격려했다.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화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지구를 방문한 박

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대되는 만큼 수해에 취약한 공사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사고 여객기 2조7천억 보험 가입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는 모두 2조7000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모두 23억8000만달러(약 2조7180억원)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 포함 1억3000만달러(약 1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책임 한도는 22억

5000만달러(약 2조5695억원)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148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3000만원)다. 1999년 몬트리올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수하물은 1인당 1700달러(약 194만원), 화물은 1kg당 28달러(약 3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침수피해지역 찾아

농협전남지역본부 박중수 본부장은 지난 6일 집중 호우로 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등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농지재 공급 및 복구인력 지원을 약속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2013 SUMMER 여름방학

#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영어캠프

24시간  
영어로 생활

LEVEL  
조별수업

해외  
문화체험

생활  
안전관리  
시스템

수학  
선행학습  
실시

맞춤식  
프로그램

**필리핀 영어캠프**

- 대상 | 초·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16일~8월25일(6주)  
2013년 7월29일~8월25일(4주)
- 비용 | 4주 233만원 / 6주 350만원(항공료 65만원이상 별도)  
(15세미만 입국비용, 공항세 포함)
- 포함사항 : 수업료, 숙식비, 보험료, 비자연장비,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포함

**뉴질랜드 영어캠프**

- 대상 | 초·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23일~8월19일(4주)
- 비용 | 4주 565만원 (항공료 포함)
- 포함사항 : 항공료, 현지보험료, 학교수업료, 홈스테이, TAX,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 포함

광주일보 2013 영어캠프 상담문의 TEL. 062)224-8111 FAX. 062)226-8111